

‘주주 친화경영’에 대규모 투자… 초격차 벌리는 삼성

배당금 총액 내달 20일 지급 예정
낸드·D램, 경쟁력 강화로 호실적
내년도 수요 증가로 견조세 예상

반도체 사업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올 3분기에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경영’과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주주들에게는 2조원이 넘는 현금을 분기실적으로 배당하는 한편, 삼성을 탄밀까지 쫓아온 중국 등과의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잊지 않았다는 평가다.

◆중간 배당금 2조4000억원

삼성전자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354원의 분기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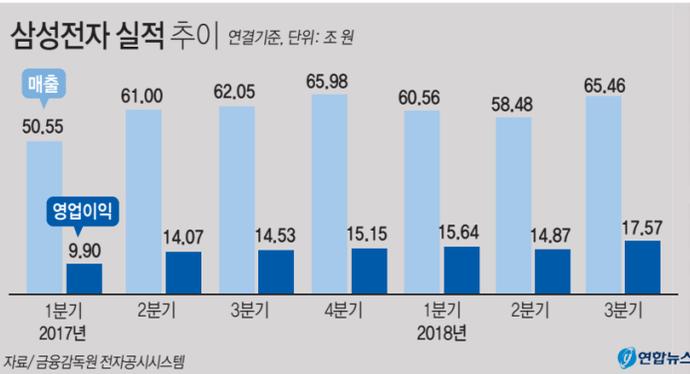
배당금 총액은 약 2조4046억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며 다음달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가 0.8%이고, 종류주는 1.0%로, 배당금은 액면분할 이전으로 산정하면 주당 1만7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계획했으나 이를 상향조정해 이익현금흐름(FCF)의 50%에 달하는 5조8000억원 전액을 배당으로 지급했다. 전년 대비 46% 늘어난 액수다.

올해는 총 9조6000원을 배당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분기에는 그 중 약 4분의 1 수준으로 배당이 이뤄졌다.

◆반도체 실적 사상 최대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약 13조7000억원은 반도체 사업부에서 나왔다. 이는 반도체 사업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다. 매출은 24조7700억원이다.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1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1~2분기에 11조원대를 보였다가 3분기 13조원대까지 올라섰다.

메모리 시장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함께 서버·모바일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풀이된다.

최첨단 공정 비중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주력한 덕분에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낸드는 평택에서 생산하는 64단 3D V낸드를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디램도 10나노급 제품으로 전환을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했고 응용처별 고객 요청에 적극 대응하며 호 실적을 냈다.

시스템LSI 사업은 3분기 스마트폰 시

장 성수기에 따라 이미지센서와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구동칩(DDI)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됐다.

특히 이미지센서의 경우 멀티플 카메라와 고화소 센서의 채용이 확대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영업이익 17조 시대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3분기 17조 57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분기 영업이익 17조 시대를 열었다. 지난 1분기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15조6400억원)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26.8%를 기록했다.

◆시설투자 32조원… 미래 대비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술 리더십 강화를 통한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총 31조80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메모리 부분의 경우 평택에



생산 라인을 증설해 지난해보다 소폭 시설투자가 증가했으나, 파운드리리는 지난해 10나노 공정 관련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투자는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플렉시블 올레드(OLED) 패널 생산량 증설 투자가 집중돼 올해 시설투자는 줄었다.

한편 3분기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 부문은 4분기 부품의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 모습이지만, 낸드의 경우 SSD 시장이 확대되고 모바일용 고용량 제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업체들의 64단 3D 낸드 공급이 증가하고 PC용 SSD 시장 경쟁이 심화돼, 낸드의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D램은 일부 고객사의 단기적인 재고 조정 등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술

리더십과 탄력적인 제품 라인업을 통해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서버와 모바일 응용처에 5세대 3D V낸드 적용을 확대하고, 10나노급 디램 제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제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 메모리 시장은 계절적 영향에 따라 1분기 업황이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2분기 이후 서버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세로 인해 수급 상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낸드는 클라우드 시장 성장으로 고용량 SSD 수요가 증가하고, 고용량 모바일 스토리지 채용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점차 수급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D램은 머신러닝 기반 AI 서비스가 확대돼 고용량 제품 위주로 수요 강세가 전망되고, 중저가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요 견조세가 예상돼 2분기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초고속, 초저지연 5G 기술 스마트폰에 적용… 차별화 포인트 준비할 것”

삼성전자는 31일 3분기 실적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5G 단말·장비·칩셋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초고속, 초저지연 등 5G 기술을 당사의 스마트폰 등 장비에 극대화하기 위해 초고화질 영상 감상, 게임 경험 등 다양한 차별화 포인트도 준비하

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 측면에서 5G 도입은 현재 정제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4K 초고화질 동영상과

실시간 개인방송 등 그동안 네트워크 속도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G 상용화에 대해서는 “12월 통신 선

진시장인 한국과 미국에서 5G 상용화를 시작으로 내년엔 중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0년 이후엔 인도 등 성장 시장에서도 계획 중이며 5G 국가 확산과 더불어 많은 기회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www.pdna.co.kr

“눈부신 어린 피부, 비밀은 DNA”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아데노신 함유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 피디엔에이 크림

P+DNA

수분케어와 동안관리를 한 번에.
겨울에도 눈부신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 ✓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함유
- ✓ 식약처 고시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 아데노신 함유
- ✓ 병풀/어성초/치아씨/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오일 함유

주름개선

식약처 기능성
보고인료
동안관리 효과

물광효과

7가지 성분의
풍부한 영양감과
확장 수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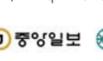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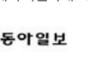
피부진정

순하고
편안한
사용감

[주요 언론에 등안크림으로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0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